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모든 일 함이 없이 해야 잘 굴러가요

오늘 또 한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없이 항상 오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영원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조상들의 영령들뿐만 아니라 내 앞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전부 주인공 안에다 흡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 또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살아나가는 데도 걸림이 없고 애로가 없게 되죠. 걸림이 없다 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통신이 돼서 공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걸림없이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님네들도 신도들한테 꼭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공심·공생으로 사는법

이 하나하나가 너무도 살기가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뛰면 빠르고 느리게 뛰면 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뛰고 안뛰고가 없이 빠르게 생각하면 빠르고 이해가 안돼서 느리게 생각한다면 느린 거죠. 뭐든지 결정이 안나고 적응이 되지 않죠. 이해가 돼야 결정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넣는대로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 넣는대로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넣어도 넣어도 둘이 아니니 늘어나지 않는다. 또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다 집어넣으면 내한테서 우글거리고 집안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어넣어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체로 된다면 정말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럽단 얘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척 애를 쓰시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로 하지 않는다면 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봐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깐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이 되죠.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 경지가 참 많아서 법안, 혜안, 불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고 올라가시겠죠. 모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게 뭐냐하면 내 마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면 그 겨자씨 속에 일체제불이 다 들어가요. 그런 걸 다 이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좇아 다니면서 모시고 받들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중생들도 다 넣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쥔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었다 또 꺼내서 풀어줘도 풀어준 사이가 없이 풀어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공법도리죠.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총에 맞아 죽었다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목을 매서 죽었다거나 이렇게 아무리 어려웁게 살고 악하게 살고 잘못 살고 이래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모든 거를 넣으면 그냥 바꿔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가면서 모든 게 편안하게 사실려면 이 도리를 몰라서는 안됩니다. 지금 각 세계를 봐도 천주교나 기독교 또는 알라신교나 티벳불교 등 모두를 봐도 진짜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들어가서 자활을 하게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자활이라고 해도 화두를 갖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자활이 아닙니다. 화두는 내 모습이 벌써 화둡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일체제불도 일체 중생도 다 한꺼번에 공체로구나, 공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 쯤은 알아야 전체를 알게 되죠. 일하시는 것도 때로는 이쪽으로 들어갈 걸 저쪽으로 들어가니깐 참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도 골수를 찾아서 잘 들어가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기가 쏙 빠지고 자기 주인공을 내세우면 옳게 들어가게끔 다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이런 말만 자꾸 한다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아신다면 나도 바다와 같고 여러분이 우물 안처럼 생각하시면 나도 우물 안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다로 탁 터져서 훨훨 턴다면 나도 훨훨 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한치도 못나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 정신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림·최주현

> **조상영령·이웃들 주인공 안에 흡수하면 둘 아니게 공생하게 돼 걸림없고 평안해져요**

경전 뜻으로 이해를

귀신이나 선신이나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지 누가 문 찾아서 들어옵니까?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고 천정을 통해서 그냥 들어옵니다. 선신은 그렇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문을 찾아서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런 도리를 안다면 문을 찾든지 벽을 찾든지 상관이 없죠. 만약에 바깥에서 10명이 들어온다면 나도 안에서 10명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깐요. 모습을 바꿔서 그 사람에 대치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화해서 말이죠. 이게 말이니깐 그렇지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어떻게 해야만 될런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실험을 해 볼래도 남을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다치게 하기 싫어서 내 모습으로만 자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상당히 고달팠습니다.

어느 신도가 점을 보러 가니깐 그러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봐 주구선 그 사람만 나중에 따로 불러서는 "댁에는 위에서 부처님이 다 보시는데 뭣하러 점을 치러 왔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혼나니깐 제발 좀 가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이게 말 자체는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제일 뜨거운 겁니다.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실험 다 해 봤습니다. 내 몸뚱이를 막 뒹굴려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만약에 몸뚱이를 몸뚱이 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게 살다가 그냥 옷 벗으면 될 것을 그렇게 괴로웁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뭐가 오더라도 그건 실험으로 생각하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거나 한다면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깐 말입니다.

내가 누구더러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선 내가 한번 해 보니깐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도 가겠다, 무꾸리쟁이한테도 가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게 있다는 거는 알지만 "너만이 너를 고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런데가" 하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래도 수술을 할 거는 하고 하지 않을 건 안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거나 할 거나 다 송두리째 가서 수술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무척 심하고 몸살이 크게 났으니까 진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진찰을 하다 보니깐 큰 병이 있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겁이 덜컥 나는데 이 도리를 공부한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볼 점이 있을 텐데 공부도 안했고 일가친척중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무 얘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몰라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서 결국은 못나오고 죽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멀쩡히 걸어 들어가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을 사람은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도 차가 이쪽으로 와서 다쳐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에 치어 갑자기 죽은 영혼이 정신없이 뛰다가 얼마쯤 가다 보니 이상하거든요. 다시 자기 육체 있는데로 오니깐 육체가 이미 없어졌더랍니다. 그런 거를 수차에 봤어요.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아무 모습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라도 닥치면. 그러면 그게 벌써 그 도릴 모르니깐 들어와서 거기서 차 사고가 나게 만드니깐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건 저절로 병이 생긴 거죠.

영계성이라는 것도 이런 데서도 생기고 저런 데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꼭 내 친척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지간에 생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도리는 진짜로 아셔서 실험해 보시고 자꾸 자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거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이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절이든지 사찰은 많으나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그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절에 아무도 없더라. 사찰은 참 좋은데 그 절에 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러거든요. 그래 정말 아무도 없다는 줄 알았더니요 스님네들은 여러 스님네들이 계신데 아무도 없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만 딴 사람은 알아 듣지 못할 수도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깐요. 그 스님이 알아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건지 또는 부처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모르니깐요. 하여튼 오늘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질문1: 저는 포항지원의 정인화입니다. 큰스님,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런 법문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각자의 차원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그릇의 크기와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져 큰스님의 법문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스님: 내가 법문을 할 때에 그대로 담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해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이 진리와 틀리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법문하는대로 그대로 한다면 막말로 한다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서 흉내내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아, 앵무새? 허허허 허허. 앵무새밖에 더 돼요? 그러니깐 그 법문이 어떤 내용인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댁에서 그 말의 뜻을 말할 수가 있죠. 부처님의 말씀도 경에서 읽는대로 그대로 읽으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앵무새 흉내내듯 하지 말고 네 소리 좀 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깐 그대로 그 말을 담지 마시고 그 뜻을 담으시란 얘깁니다. 그러면 댁의 게 되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한 사이가 없고 앞으로 한다는 말도 없고 했다는 말도 없다. 그러니깐 없는 것을 받아서 있는 대로 쓰되 함이 없이 써라 이런 겁니다.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쓰되 뜻으로 받아서 함이 없이 써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봉선사 월운 큰스님 능엄경 산림 대법회 안내

봉선사는 일찍이 한국불교 교학의 근본 도량으로서 故운허 큰스님의 원력으로 팔만대장경 역경불사와 후학 양성은 물론 서울 인근의 불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장경 역경불사의 회향을 준비하고, 능엄학림을 통해 도제 양성의 교육 불사에 위법 망구하시고, 종단의 어른이시며 대강백이신 **월운 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장장 6개월에 걸친 능엄경 산림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감로와도 같은 큰스님의 능엄경 설법을 통해 불자로서 거듭나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 뜻 깊은 대법회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 재: 2000년 6월 8일(음 5월 7일)목요일 오후2시
▶회 향: 2000년 11월 30일(음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6개월간)
▶법회시간: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총100시간)
▶장 소: 봉선사 청풍루
▶동 참 금: 매월 3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봉선사 사무실(☎ 0346-527-1951)
봉선사 교무국(☎ 0346-527-1146)

※교통편 ·청량리 우체국 건너편에서 707좌석 광능내 하차
21번 의정부행 봉선사입구 하차
·의정부 시장에서 21번→봉선사 입구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변밀운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및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6개월)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0년 6월 5일까지
◆개강일시: 2000년 6월 5일 오후 5시 정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